

## □ 中 광저우, 봉쇄지역 주민에게 단오절 선물 지급

광저우(廣州)시가 단오절 연휴(12~14일)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과 봉쇄 구역 주민들의 명절 수요를 지원했다. 최근 광둥(廣東)성 광저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바이허둥(白鶴洞)·중난(中南)거리 등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광저우 각 지역에서는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자 각 요식업체에서는 저마다 활로를 찾기에 분주했다. 광저우주자(酒家)·신싱자위(新興家喻)·타오타오취(陶陶居)·쯔저우러우(滋粥樓) 등 외식업체에서는 저만의 특색있는 테이크아웃 세트를 출시했다. 일부 외식업체는 배달 플랫폼에 단오절 쑹쯔(粽子·대나무 잎에 싼 찹쌀밥으로 단오절 전통음식)를 선보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광저우 주민들의 중요한 물류 루트가 됐다. 광저우시 상무국은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연합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측에 ▷가격 안정 ▷원활한 물류 이동 ▷우수한 서비스 ▷안전 등을 당부했다.

광저우시의 대형 마트 역시 단오절 기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육가금류·채소·과일 등 주요 소비품의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30% 이상 늘렸다. 한편 광저우시 정부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바이허둥·중난거리 주민들에게 단오절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리완(荔灣)구의 한 정부 관계자는 쑹쯔 10만 개를 구입해 단오절 기간 동안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쑹쯔 2봉지, 마스크 1팩 등이 들어 있는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말했다.(新华社, 2021.6.15.)

## □ 中 단오절 연휴 국내 관광 수입 294억3천만 위안 달해

단오절 연휴(12~14일) 3일 동안 중국 내 나들이객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문화여유부가 14일 관련 통계를 발표하며 올해 단오절 연휴 동안 중국 내 관광객 수는 8천 913만6천 명(연인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1%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98.7%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내 관광 수입 역시 294억3천만 위안(약 5조1천364억원)으로 139.7% 늘어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74.8%를 기록했다.

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이번 단오절 연휴 동안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그중 입장권·렌터카·테마관광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7%, 153%, 171% 늘었다.

단오절 연휴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 고속철도를 선택한 관광객이 많았다. 여행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씨트립(Ctrip)에 따르면 연휴 첫날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상하이·베이징·항저우(杭州)·청두(成都) 등 10대 도시가 주요 관광지로 선택됐다. 중국 여행 플랫폼인 취날닷컴(去哪儿網)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고궁, 쑤닝두이(三星堆) 박물관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씨트립 플랫폼 내 워터파크 검색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마야(瑪雅)해변 워터파크, 청두 룡창(融創) 워터월드 등이 가장 인기 있었다.

한편 청년들이 단오절 연휴 관광의 활성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80허우(80後·1980년대 출생자)' '90허우' '00허우'가 전체 관광객의 85%를 차지하면서 단오절 연휴 나들이를 주도했다.

그중 18~25세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고속철도 여행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35세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80% 이상을 차지했다.(新华社, 2021.6.16.)